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한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박찬우** · 최나리*** · 강은영****

A Study o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of Special Education Policy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Focusing on Gyeonggi Prouince

Park, Chan-Woo** · Choi, Na-Ri*** · Kang, Eun-Young****

요약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특수교육정책의 기획-운영-평가 과정에 대한 특수교육당사자인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하여 향후 특수교육정책이 나아가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이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과정별 특수교사 8명과 학부모 8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반구조화된 방법으로 특수교사와 학부모별로 총 2회기로 진행되었으며, 회기 당 면담 시간은 약 1시간 30분가량이였다. **[결과]** 연구결과, 5개의 대주제와 13개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결론]** 1)특수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 2)특수교육정책의 기획-운영의 문제점, 3)특수교육정책의 기획-운영 방향에 대한 제안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제시하는 특수교육정책이 교육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이 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특수교육정책, 경기도, 포커스 그룹 면담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of special education policy regarding plan-operation-evaluation processes and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special education policy directions. **[Method]** For this purpose, 8 special education teachers who teaches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job training students, and 8 parents were focus group interviewed.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wice with semi-structure interviews type and it lasted an hour and half. **[Results]** As a result, 5 upper categories and 13 sub categories were founded.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at understanding and empathy of special education policy, problems of special education policy plans and operations, and suggesting of education policy plan and operation, special education policy directions were suggested by reflecting special education stakeholders' needs.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Policy, Gyeonggi, Focus Group Interview

* 이 논문은 2017년 (제)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수행한 특수학교(급)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경기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분석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밝은학교 교사
Teacher, Balgeun School

*** 공동저자, 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 Uiduk University

**** 교신저자,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eykang926@yongin.ac.kr)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gin University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교육의 목적은 모든 아이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그 내용과 방법은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의해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교육과 관련한 법률주의(legislative policy)는 교육에 관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하려는 것과 하지 않으려는 것의 적극적인 의지로[4, 5], 사회적 이념을 목적으로 행하려는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의 결과이다[21].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교육 받을 권리와 부모의 무상교육, 교육의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통해 학습자의 교육 받을 권리(the right to education)를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으로 정의되며[25], 교육당사자의 능동적인 권리이자, 스스로 형성해 가는 적극적인 권리로 해석된다. 교육 받을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의 자유와 균등 교육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19].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한이 바로 교육권이다. 교육권은 선언적 선언이나 인적, 물적 지원을 구하는 것에 국한되어서 안 되며, 교육당사자인 교원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이 상호 협력의 방향으로 민주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한다[25].

교육기본법은 교원, 학생, 보호자를 교육당사자로 규정하며 제12조(학습자)에서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나아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할 것(제19조 1항)” 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제8조 2항)” 을 명시한다. 이 조항은 교육당사자의 역량강화를 기조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수교육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있다[21]. 즉, 특수교육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교육기본법 제12;13;14;15;16조)는 상호 협력하여 교육의 목적에 맞게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16, 22].

여러 법과 함께 수립되는 특수교육정책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아실현과 조화로운 사회통합으로 공공의 복지를 향상 시킨다는 관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그 가족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과 독립적 생활능력을 갖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교육기본법 제2조),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특수교육법 제1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정책은 다양한 전체 교육정책 중 하나의 하위영역으로 분류되어 여러 가지 법적인 권리 보장을 실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간략하게 또는 너무 포괄적으로 수립되고 있다[23]. 이러한 제한점을 넘어서 앞으로의 특수교육정책은 특수교육대상학생 당사자가 직면한 상황의 문제의식과 시대적

요구를 담는 구체적인 방향성과 실행방안을 전체 교육정책에 관련된 곳곳에 함께 담아 내야 한다. 또한 실행방안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습경험을 어떻게 경험하도록 할 것인가가 포함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교육정책으로 기획, 운영되어야 한다[10, 11].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교육당사자의 권리행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실현하고,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한다[8].

한편, 이러한 특수교육정책의 성공여부는 교육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제도를 근거한 학교교육으로 결정된다[18]. 학교교육은 교육법체제도의 향상성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의 요구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언제나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역동성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6]. 즉, 특수교육정책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학교교육과 학습을 위한 다각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분배가 교육당사자에 의해 민주적이어야 한다[1, 20]. 나아가 특수교육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이 지속력과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의 권리가 민주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11, 12]. 그렇다면, 교육당사자인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 권리의 실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분분할 수 있다. 교사는 학교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 교육적 권리를 가진다[19, 25]. 학생은 학습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가진다. 또 학부모는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습 받을 권리와 자녀의 교육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발달과 다양한 학습특성으로 인해 교육당사자의 사회·환경적 맥락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 교육당사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23], 학생의 생애주기별로 그에 맞는 개별화된 접근과 다양한 교육 기회와 다각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3, 16].

하지만 교육당사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고 그 반영의 폭에서 깊은 한계를 갖는 정책 개발 과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권리가 특수교육정책에 반영되기란 쉽지 않다[8]. 교육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정책수립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당사자의 역할을 주목하지 못한다. 더욱이 교육관련 법과 제도가 세부적인 측면까지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학교교육을 강력한 통제 아래에 두고, 입법과정을 통해 전국적이고, 획일화된 교육정책으로 인용되어 왔다. 설사 기획-운영-평가의 순환 과정에서 교육당사자의 권리를 고려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형식주의, 요식행위에 그치는 한계를 가져왔다[16, 24]. 그리하여 특수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는 일반교육의 연관성과 특수교육의 적합성을 두고 깊이 논의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 및 학계의 전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왔고, 교육당사자의 의견은 개입의 여지가 부족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17, 26]. 특수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으로 본다면, 다양한 교육정책이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특수교육정책이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권리 보장을 실체화하기 위한 민주적 방안으로서 마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18, 23].

이러한 교육정책의 민주적 교육질서는 교육당사자에 의한 교육당사자를 위한 그들의 역할에 주목하게 된다[6]. 민주적 교육제도는 교육당사자를 배제하고 교육정책과 관련된

주요 논의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당사자를 제외하고는 특수교육 문제를 논의할 수 없으며[2, 8, 16], 교육당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없이 특수교육정책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26, 27]. 그렇다고 해서 교육정책의 기획-운영-평가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전문가와 관료집단의 노력과 가치를 왜곡하고 폄하 하여서도 안 된다[16].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수교육정책의 기획-운영-평가 과정에서 전문가집단이나 정당, 교육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인 교육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한 가치로 존중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6, 26, 27].

앞으로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민주적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공평한 교육”이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민주적 교육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교육으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자치지역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경기도에서 실천하고 있는 혁신교육은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운영, 교육행정, 교육정책 등 모든 영역에서 민주적인 과정과 방법이 존중되는 교육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있다[28].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경기도는 교육전문가, 정당, 교육부로 점철되는 기득권의 이해를 따라가는 일률적인 교육정책이 아닌 교육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생중심, 현장중심을 기조로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과 전략들에 대한 고민이 활발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의 특수교육정책의 기획-운영-평가과정에 대한 교육당사자이자 교육의 주체인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요구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 문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정책의 기획-운영-평가 과정에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특수교육정책의 기획-운영-평가 과정에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요구는 무엇인가?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전공과, 각 과정에 재직하고 있는 특수교사와 현재 자녀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부모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1)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육기관에 재직 또는 자녀가 재학 중이고, 2) 연구 참여에 동의 의사를 밝히고, 3) 특수교사는 8년 이상의 교사

경력과 학부모는 자녀가 3년 이상 경기도 내의 특수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로 삼았다. 그리하여 총 특수교사 8명, 학부모 8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의 연령대는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으로 평균 교육경력은 16년 8개월이었고, 학부모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자녀의 재학 기간은 평균 6년 5개월이었다. 면담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Type	Code	Education	Education Organization Type	Career Year	Gender	Age
Special Education Teachers	T1	Infant special education support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12	F(Female)	36
	T2	Kindergarten	Kindergarten	8	F	33
	T3	elementary school	Special education class	23	F	47
	T4	elementary school	Special school	15	M(Male)	44
	T5	Middle school	Special education class	8	F	34
	T6	Middle/High school	Special school	29	M	55
	T7	Middle school/ Job training	Special school	14	F	48
	T8	Job training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26	M	50
Participants Type	Code	Education	Education Organization Type	Information related to their child		
				Education Year	Gender	Age
Parents who have child with disabilities	P1	Kindergarten	Special school	Infant special education support 1, Special school 3	M	7
	P2	Kindergarten	Kindergarten	Inclusive education 3	F	9
	P3	elementary school	Special education class	Special education class 3	F	10
	P4	elementary school	Special school	Special education class 3	F	10
	P5	Middle school	Special education class	Special education class 7	M	15
	P6	High school	Special school	Special school 12	M	17
	P7	Job training	Special school	General class 3, Special education class 8	M	19
	P8	Job training	Special school	General class 6, Special education class 3	M	20

자료 수집 절차

면담 질문지 개발

경기특수교육정책에 대한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비지시적, 반구조화 된 질문지로, Krueger & Casey[15]가 제시한 질문 방식과 과정을 적용하여 시작, 도입, 소개, 전환, 주요, 마무리 순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 협의를 바탕으로 초안을 개발하였고, 현직 특수교사 4인(유·초·중고·전공별 1인)과 도교육청 장학사 1인이 모여 2차 협의과정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이후 구성된 질문지는 연구목적에 부합한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특수교육전공 교수 1인과 지역 교육지원청 장학사 2인, 특수학교 관리자 1인, 과정별 특수교사 6인, K시 장애인부모회장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고, 구체적인 논의거리를 포함하는 질문을 추가하는 3단계를 거쳐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후 특수교사 2인에게 예비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질문 내용이 모호한 문항, 답변의 내용이 광범위한 질문문항, 연구의 목적과 관련성이 적은 문항 등은 삭제하여 특수교사 질문지와 학부모 질문지 <Table 2>를 개발하였다[13].

<Table 2> Interview Guide Questions

Question types	Question contents		
	Special education teachers	Parents	
Opening	Participants' information	Participants' children information	
Introduction	Overall experience as a teacher	Overall experience as a parent	
Introduction 2	Opinions when hear special education		
Transition	Opinions about Gyeonggi special education policy directions		
Core question	Common	Gyeonggi special education policy directions and goals	
		Problems of current special education policy	
		Suggestions for special education policy	
	Kindergarten	Teachers' participation for developing special education policy	Difficulties and solutions for their child's school life
		Parents' and child's participation for developing special education policy	
	Elementary school	Needs for Infant special education support and suggestions	
		Suggestions for improving quality of early special education	Suggestions for improving quality of early special education
	Middle/High school	Problems of Gyeonggi special education policy curriculum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ndividual education plans
		Suggestions for improving special education	Suggestions for improving special education
	Job training	Problems of Gyeonggi special education policy curriculum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ndividual education plans
		Feasibility of career education directions	Feasibility of career education directions
	Close	Suggestions for improving career education	Problems and suggestions of career education
Problems of being hired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service		Problems of being hired adults with special education service	
	Advice and opinions of Gyeonggi special education policy directions	Needs and opinions of Gyeonggi special education policy directions	

면담실시

면담은 2017년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수교사와 학부모 집단별 실제적인 경험에 대한 의견과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정보를 듣고자 특수교사 1회, 학부모 1회, 총 2회에 걸쳐 포커스 그룹면담을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연구 참여자는 4명 이하로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크기는 그룹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공과 과정과 교육배치 형태를 고려하여 각각 6~8명으로 구성하였다[12].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에 전화와 이메일로 연구목적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얻은 뒤, 면담 일주일 전 질문내용을 이메일로 미리 안내하여 답변을 미리 생각해 올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과정에서 주제와 질문 의도에 벗어난 질문에 대해서는 면담 주제를 다시 상기시키며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총 3시간 가량 소요되었고, 연구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견과 면담 당시 느낌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면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과 기록을 실시하였다. 면담장소는 K시 소재 특수학교 교실을 이용하였고, 학부모 대상 면담은 P시 특수학급 교실에서 진행하였다. 녹음한 면담 내용은 특수교육 전공 박사과정생 1명에 의하여 각 면담을 실시한 날 이후 1주일 이내에 전사본으로 작성하였다. 이후 분석과정에서 보충의견이 필요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의견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추가로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진행한 연구진은 전사 작업이 끝난 후 전사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위해 녹음기반분석을 통해 수정 또는 확인하였다[13, 14].

자료 분석

이 연구의 면담자료 분석은 지속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3]. 연구자들은 면담 이후 전사본을 읽고, 의미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을 개방적 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였다. 면담 전사본을 코딩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공동연구진이 함께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전사본에서 중심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문장을 개념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핵심적인 의견에는 코드를 임의로 배정하였다. 둘째, 연구진 각자가 유목화한 주제에 대해 비교와 대조과정을 거치고, 서로 동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를 재정리하였다. 셋째, 각 코드 및 범주들 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하위주제를 정한 뒤, 하위주제들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내용의 하위주제들을 모으는 주제별 코딩방법[9]을 거쳐 5개의 대주제와 13개의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핵심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의견이 집단의 의견인지, 소수 또는 특정 개인의 의견인지 고려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와 개인에게 국한된 관심사와 연구주제와 동떨어진 내용인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7].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연구자들은 자료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다음을 고려하였다. 첫째, 연구주제 관련 선행연구와 특수교육운영계획서, 연구자의 실재(researcher's presence)를 삼각검증(triangulation of data)을 실시하여 연구자가 인식한 내용을 정확한 해석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결과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각 집단의 입장에서 특수교육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도록 면담을 실시하였다. 셋째, 면담 후 전사본을 연구 참여자에게 이메일로 공유하여 연구 참여자가 의도한 진술과 같은 의미인지 확인을 받아 연구자가 도출한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위와 더불어 연구 시작 전, 연구 참여자에게 자발적으로 연구를 그만둘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에 대한 언급, 자료수집 과정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서명을 포함한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결과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에 대해 집단 면담을 통해 도출된 대주제, 소주제 세부내용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and needs of special education policy plan and operation

Upper categories	Subcategories	Meaning units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of special education policy	Gap of understanding and empathy about special education policy	Lack of feasibility about Gyeonggi special education policy directions
		Empathy of designed special education but different its interprets
	The needs of pragmatcal special education policy to receive an appropriate education service	Needs of specialized special education policy to implemented designed education
		Timely mannered to develop policy of inclusive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class
		Lack of special education policy for students with mild and multiple disabilities
		Difficulties of entering special education schools rather than entering college
	Systematic special education policy to meet life cycle	Lack of infant education and career education support policy
		Lack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Table 3>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and needs of special education policy plan and operation (continued)

Upper categories	Subcategories	Meaning units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arents' needs of special education policy	Needs of developing and operating designed special education policy	Plans for enlarging infant special education support
		Plans for designed policy for students with mild and multiple disabilities
	Suggestions of stakeholders' subjectivation	Enlarging communication policy between education settings and stockholders
		Needs for sharing feedbacks for diverse and systematic special education delivery
		Friendly supervis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1.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온도차

경기특수교육정책 방향의 타당성 결여

경기도가 추구하는 특수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특수교사와 학부모 모두 경기교육의 방향성과 특수교육의 전문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학부모는 ‘꿈과 끼’에 대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담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기특수교육의 비전과 목표에 깊은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운영계획이 경기도지역의 교육적 비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T7, T8)

꿈과 끼? 맞춤형 특수교육이라는 것의 의미가 모호하네요. 그리고... 사회 참여하는 부분이 어렵고, 교육적인 부분보다 환경에 적응하고 친구들의 소리도 듣고, 얼굴도 보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P1, P2)

맞춤형 특수교육에 대한 공감은 있으나 해석의 상이함

학부모는 경기특수교육의 지향점인 학생중심·현장중심교육으로 대변되는 ‘맞춤형 특수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으나, ‘맞춤형 특수교육’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특수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여기는 학부모의 인식은 교육청의 거시적인 교육정책보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교육정책 지원보다 학교의 일상생활 중 학생중심의 개별적인 교육지원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춤형’에 대한 정도를 현재 특수교사에게 지원받는 정도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거시적 입장에서 ‘맞춤형 특수교육’ 정책에 대해 세부적인 발전 방향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저희는 특수교육의 전문성?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그냥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살피 주는지가 중요하거든요.(P1)

컴퓨터 교육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했는데 컴퓨터 자격증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처음으로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했는데, 특수선생님들이 그걸 해주셨거든요.(P8)

솔직히... 정책이 우리아이한테 맞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좀 더 세분하게 교육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건데... (P3)

경계선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해요...(중략)...경계선 친구들을 위한 장애등급도 세분화해서 오히려 어릴수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게 미래의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해요.(P5, P6)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실질적 특수교육정책의 필요성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세분화된 특수교육정책 필요

특수교사와 학부모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학생 성장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수교사의 경우, 유치원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미비, 초등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세부지침의 부재,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직업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과정에서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수업에서 소외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는 특별히 제시되어 있는 특수교육교육과정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또 있다 해도 교육과정을 적용하기에 학생 수가 많은 편인데, 유치원은 혼합 연령으로 구성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연령별 누리과정을 교육하기에...(T2)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교육부 고시 수준에서는 특수학급이나 순회학급의 사항 전반을 담기에는 개략적일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특수교육과정 편성지침도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탓에 학급수준의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기에는 시수운영 등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T4)

진로·직업교육이 광범위하고, 중증장애 학생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직업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교사들이 직업기능 중심의 교육을 직업교육의 전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T5, T6)

통합교육, 특수학급 관련 구체적 정책 마련 시급

특수교사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통합교육의 어려움은 일반학교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이었다. 특수교사는 일반교사가 통합교육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학생의 교육과 학습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 생각한다고 여겼다. 학부모는 일반교사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강해 수업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또 일반학부모의 거부와 차별로 인해 통합

교육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통합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한 게 제일(문제)이죠...문제행동이나 고집부리면 특수 교사한테만 맡기려고 해요.(T2)

아이 오빠가 일반학교에 다니거든요. 보면 초등선생님들의 인식이 매우 부족해요. 재는 “없는 아이 취급하면 되” 라고 말씀하신대요. 제대로 관리를 못해요. 쌤들이 아(한숨)...그러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P2)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잘나가는 학교거든요. 엄마들 사이에서... 그런데도 도움받을 없었다고 하던데요. 일반 엄마들이 겁이 나요.(P3)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정책 미흡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부모는 특수학교의 교육방법과 내용의 부재, 학교와 교사가 중증장애학생을 은근히 거부하는 태도, 교육을 위한 의료적 지원, 학교 내 의료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특수교육 지원이 미비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중증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고 아이들의 수도 적겠지만 거기에 대한 지침 교육 방식이 전부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그런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다양하는데 중증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아쉬워요.(P1, P2)

중증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엄마들이 학교에 가서 점심까지 해결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뇨, 위루 등 의료적 행위니까 학교에서 해줄 수 없다고... 교육을 위한 의료적 조치가 전혀 되지 않아요.(P2)

원하는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대학교 입학보다 어렵다

학부모는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전이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특수학교의 부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기관 부족, 특수학교에서 장애유형을 가리는 태도, 천편일률적인 배치기준으로 인해 입학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지 인근에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의견과 장애유형을 가리는 학교의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입학 상담하러 교무부장선생님과 상담했는데요. 당장 지체아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현장학습도 자폐아들은 계단이 있어도 가는 곳도 있는데, 지체장애아이가 있으니 새로 현장학습 장소도 찾아야하고 버스도 못타고...(P1, P2)

입학과정에서 부모인터뷰나 입학절차가 너무 못마땅해요. 장애등급과 위치? 거리로만 배정된다는게...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장학사님과 통화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하세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서울대 입학하는 것도 아니고 입학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데리고 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게 불편해요.(P3)

생애주기에 따른 연계적 특수교육정책 미흡

영·유아 교육 및 진로직업 교육지원 정책 미흡

특수교사들은 영·유아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영아담당 유아특수교사의 부족, 교육과정 미비 등의 문제로 영·유아 특수교육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부모는 영아특수교육의 홍보 부족 등을 문제로 인식하였다. 또한, 진로·직업교육에 대해 특수교사는 직업교육과 진로지도의 역량 부족과 교육과정운영의 유연성 부족, 진로·직업지원센터와 거점학교, 장애인고용 촉진공단의 협력적 업무 추진, 취업 후 관리 프로그램의 부재, 비체계적인 지원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진로·직업을 단순 기능을 익히는 정도로 여기는 교사의 인식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지도해야하는 것이 전문성의 부족을 직업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대부분의 유아특수교사들은 (지원)센터영아학급에 없어요. 그러니 영아를 위한 지도안 짜는 것도 어렵고, 수업준비도 어려워요...(중략)...어떤 지역은 장애영아가 모두 어린이집에 있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사가 유아 순회교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T1, T2)

병원에서 엄마들을 통해서 (영아특수교육)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유아특수학교를 몰랐어요. 엄마들을 통해 정보를 들었죠. 장애등록도 엄마들이 알아서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해야 되는 정도니까...(P1)

직업교육을 교육과정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에 따라 프로그램화 되니 외부기관 및 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제일 큰 문제죠...(T8, T9, T10)

고등학교 졸업 이후 평생교육 관련 정책 미흡

특수교사에 비해 학부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공과 또는 대학교, 취업 등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정기적으로 다닐 데가 없는 현실, 즉 다시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하는 상황이 고민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부모님들은 직접 치료센터나 사업장을 운영한다거나 협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등 나름의 움직임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못해주니 엄마들이 만들었어요...○○세상(G시). 부모님들이 하는 센터인데, 아이들과 엄마들이 캠프도 가고, 여행도 다니면서 이후에는 복지재단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P2, P3)

발달장애인 센터? 왜 발달장애만 것냐? 지체엄마들도 말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학교 엄마들은 거의 참석도 안했어요. 발달장애센터도 모든 지역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P1)

2.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요구

맞춤형 특수교육정책 기획 및 운영 필요

영·유아 특수교육지원 확대 방안

영·유아 특수교사는 영아 특수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 중심의 영아학급 개설과 영·유아 교육과정 운영의 현장 기관사례 공유, 영아학급 운영기관 예산 지원, 유아특수교육전공 교사 확보, 영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고, 학부모는 영아 교육과정 홍보 연수, 학교중심의 장애영아 시설개방과 부모상담 실시 등을 확대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영·유아 교육과정운영의 현장의 기관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기관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중략)... 영·유아 교육지원의 중요성이나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사례를 홍보할 수 있는 연수를 강화하는 것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T3, T4)

병원 엄마들 통해서 들었어요. 저도 우연히 알고 ○○이 (특수교육지원센터)다녔는데 모르는 엄마들 많아요...일찍 알아서 가기 어렵죠, 근데 그렇게 좋은 지원이 있는데, 아쉬워요. 동사무소나 병원에서 홍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병원에 엄마들이 많으니깐...근데 병원에서도 특수교육 받으라고 하기보다 치료받으라고 하죠...(P3, P4)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정책 방안 마련

특수교사와 학부모는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출석수업과 순회교육의 병행, 의료인력 충원,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법 개발, 학교-병원 간 협력, 병원학교 증설, 중도중복장애아 교육 전문가 양성, 학교 내 의료 행위 매뉴얼 개발 등을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발달 초기 영아시기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유전자나 감각 및 신체 구조·기능의 장애, 희귀병으로 인한 장애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입급이 된다고 하면 무얼 해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답답한 노릇이에요. 애들이 와도 가르칠 준비가 안된 거...(중략)... 학교에서 의료 인력도 있어야 하고 교육과정도 탄력적이어야 하고요...(T2, T3)

전문가 양성이 먼저입니다. 학생들을 받을 준비로 의료인력 충원이에요...중증장애 학생들을 받기 꺼려하는 대계가 책임문제예요. 워낙 약한 친구들이니...그렇다고 이런 친구들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깐 인력충원이 필요하죠... 통합환경에 노출시키기가 사실 두려워요...하물며 직업은 엄두도 못내죠...(T4, T5, T6)

사실 ○○이는 심하게 아플 때는 병원에 다시 입원해야하는 입장이라 그동안 학교에 못가는 건 그리 대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학교에 못가고 그러면 순회교육? 그런 거를 일주일에 2번이라도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학급에 있더라도 담임샘이 와서 한 두 번만 이라도 놀아주시는 마음으로 챙겨주시면 너무 감사하죠.(P1)

중증아이가 학교에 가면 엄마들이 학교에 가서 점심까지 해결해야하는 부분이고...(중략)...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된다거나... 아!, 그래서 의료 행위 매뉴얼, 보조인원, 공중보건의, 전반적으로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중증아이들에게 많은 예산 투자되었으면 하는 거죠.(P2)

교육당사자 주체화 방안

교육현장과 당사자 및 학부모 소통 정책 확대

특수교사와 학부모는 경기특수교육정책의 기획-운영-평가 과정상에 교육 주체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사연수의 질 강화, 정기적인 현장의견 나눔 협의회, 정기적인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교육지원청 중심의 교사연구회 활성화와 특수교육전공 장학사의 배치를 제안하였다. 학부모는 개별화교육계획 협의회 저녁시간대 개최, 학교 수업공개 확대,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안내, 지역별 학부모대상 공청회 확대, 직업교육 수업 및 현장 실습 공개, 학부모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특수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의 주체화방안으로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교육활동 중 자기결정의 기회 확대, 자기주장 대회 개최, 리더쉽 캠프, 학급 중심의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체계 확립, 특수학교 학생자치회 확대를 제안하였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교사들의 문제도 있지만 부모들의 인식변화로 사소한 문제들이 갈등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의 요구나 민원성 제기들이 늘어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나 컨설턴트가 필요해요. 이렇게 교사 중심이라고 생각해요.(T4)

학부모들이 장애학생의 진로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고,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들은 소문들로만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도리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교육청이나 센터 차원에서 사업체담당자, 취업생 학부모, 전공과 진학 중인 학부모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강연이나 간담회 제공이 필요해요.(T6)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책이 학생중심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특수학교에서도 학생이 주체적으로 주도하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공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자치회를 만들어 주고 모일공간을 만들어 주니 주도적으로 학생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T9, T10)

정책 간담회 등 학부모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도 일정 비율 참여시켜야 한다는 경기도 내부 규정이 있어야해요...(중략)...우리학교에서는 IEP협의회를 저녁시간이나 휴일에 열거든요, 워낙에 맞벌이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T2)

다양한 형태의 체계적 특수교육 전달체계를 위한 의견 수렴 필요

소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로의 체제 개선이라는 방향 아래 병설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수교사와 학부모 모두 추진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하지만 설립 목적을 통합교육 활성화로 이해하고 있었고, 우려되는 점으로 통합교육의 질 저하, 교육과정 운영 혼란, 일반교장-특수교감의 의견차이,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건강관리

우려, 지역주민 반대, 일반학부모의 차별, 인사제도, 학제편성 등에 우려를 나타냈고, 특히, 추진 과정 중에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특수교사는 병설특수학교 설립 추진과정에서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제·개정, 병설특수학교 시범 운영, 교사·관리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 구체적인 운영계획 개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안) 개발, 통합교육 모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일반교사와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학부모 역시 일반교사와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가르칠 교사 역량과 건강관리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병설특수학교 설립의 추진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죠... 다만, 추진 배경에서 병설 특수학교의 잇점이란 필요성처럼 실제 교육이 충족되려면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T1)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특수교사들이 통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소용이 없듯이, 병설특수학교 설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병설특수학교 구성원의 대다수는 비장애학생들이며, 일반 교육의 틀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형태일 것인데, 쉽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일반교육에서의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T4, T6, T7, P1)

특수교사 친화적 컨설팅 장학

특수교사는 컨설팅 장학에 대해 특수교사 중심의 장학을 제안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컨설팅 매뉴얼 개발, 교육과정과 수업, 업무관련 등의 다양한 컨설팅 분야 확대,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한 컨설팅 위원 선정, 과정별 전공을 고려한 장학사나 교사 컨설팅 실시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만약 컨설팅 장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면 더 수월한 컨설팅 장학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죠...(T1, T4)

각 기관별 현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컨설팅이라 봐요. 또한 기관의 현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교육청에서 지원하여 컨설팅한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어떨지 싶어요.(T2, T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특수교육정책의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포커스 그룹 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비교적 비슷한 결과로 도출되었으며, 자료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와 학부모는 특수교육정책의 기획-운영-평가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중심의 특수교육의 실현을 위해 일관성 있고, 세분화된 특수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다양한 특수교육 요구가 있는 학생(예. 영·유아, 중도중복장애학생, 경계선 학생 등) 및 그들의 학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본 포커스 그룹 면담에 참여한 특수교사와 학부모는 모두 교육기본법에서 제시한 교육당사자이다. 실제적 특수교육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향식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만이 아닌 민주적 교육제도 마련을 통해 교육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교육당사자의 역할이 드러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19]. 교육당사자가 주체화되고 정책을 마련하는 전문가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민주적 교육질서가 보장될 때, 교사, 학생, 학부모 중심의 교육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25]. 우리 앞에 놓여진 미래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하향식, 전달식 교육정책은 그 비전에 대한 공감과 실효성, 당위성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며[12], 일반 교육정책의 거시적인 방향 속에서 변두리로 인식되는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확장적 방향성에도 제한이 올 수 있다. 여전히 경기도 제4차 특수교육정책 운영, 평가과정과 제5차 특수교육정책 기획과정 등에서 특수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직접 참여한 경우와 민주적 교육질서에 의한 교육당사자의 공감대를 불러오는 과정은 희미하였다[2]. 따라서 앞으로 특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스며들어 마련되기 위해서는 교육당사자와 소통이 민주적 교육질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교사와 학부모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을 선언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특수교육현장에서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영·유아의 특수교육, 통합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지원, 장애로 판명되지 않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병설특수학교 설립, 직업체험에 그치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논의점들은 경기도 특수교육계획이라는 문서에 반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선언적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특수교육정책 기획과정에서 교육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기도특수교육의 비전제시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다. 맞춤형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갈급함은 지금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예상해보았을 때, 다양한 특수교육 요구가 있는 학생(예. 경계선 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특수교육은 ‘교육의 수월성’이라는 개념의 재구조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당장 학업성취나 교육적 성공의 미시적 측면에서 교육의 수월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측면에서 미래 성인사회로 진입했을 때,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한 ‘교육의 수월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특수교육의 당위성을 더욱 마땅히 하고, 유아에서 전공과 학생까지, 중도중복장애학생을 포함하여 경계선급 장애학생 등 다양하게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품을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학생중심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8].

셋째, 특수교사와 학부모는 특수교육정책이 경기교육기본계획의 일부 영역에서만 특수교육으로 명시되어 있어, 교육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이원화된 인식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2]. 이러한 우려는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개별화교육의 질적 담보를 흔드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특수교육정책이 일반교

육과 맥을 같이하는 가운데 기획되어야 하고, 기획과 운영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발달과 학습특성,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또 중도중복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통합교육에서 비롯되는 문제, 영·유아 특수교육 지원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생애주기에 따른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요구는 학령기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넘어서 영·유아기의 조기 개입, 성인기 이후 평생 교육 차원에서도 특수교육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시대적이고 사회·문화적인 흐름에 대한 정책적 반영이 실제화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체화하기 위해 특수교육정책 수립과정과 집행에서 교육당사자의 요구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인식과 요구는 향후 특수교육정책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해석에 있어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경기도 특수교육기관에 재직(학) 중인 특수교사와 학부모에 국한하여 살펴본 인식과 요구이므로 타 지역에서 일관된 요구와 차별적 인식 및 요구가 어떠한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교사와 학부모 집단을 별도로 면담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특수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한 집단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호 면담 과정 중 또 다른 특수교육정책 관련 인식이나 요구가 도출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Choi, M., Kang, Y. (2004). Welfare service of children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8(1), 153-167.
- [2] Choi, N., Park, C., & Kang, E. (2019). An analysis on special education policy plan using the multi-dimension policy analysis model of cooper: focusing on gyeonggi special education pl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8(2), 343-364.
- [3] Corbin, J. S., & Strauss, A. A.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4] Dye, T. R., & Dye, T. R. (1992). *Understanding public poli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5] Hwang, J. (2012). Study on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2A(2), 93-112.
- [6] Jung, J. Choi, J., Lee, S., Jung, J., & Jung, K. (2010). *The foundation of policy*. Seoul: Daemung press.
- [7] Kidd, P. S., & Parshall, M. B. (2000). Getting the focus and the group: enhancing analytical rigor in focus group research.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0(3), 293-308.
- [8] Kang, E., Choi, N., & Park, C. (2019).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arents on special education policies: Focused on gyeonggi special education polic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21(2), 123-152.
- [9] Kim, B., & Cho, W. (2005). Policy and practical problems of inclusive education in Korea: an inter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6(4), 37-53.

- [10] Kim, B., & Do, S. (2012). Reality of Korean special education as the establishment of subject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3*(1), 1-18.
- [11] Kim, K., & Kim, N. (2015). An investigative study on operational state of training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in educational training center in city and province.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7*(1), 295-318.
- [12] Kim, S. (2017). Legal review for the realization of education welfare. *Chonbuk Law Review, 52*, 57-84.
- [13] Kim, Y. (2011). *A research for qualitative study*. Seoul: Academy press.
- [14] Krueger, R. A., & Casey, M. A. (2000). *Focus group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15] Krueger, R. A., & Casey, M. A. (2017). *Focus group: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c.
- [16] Kwak, J., & Kim, B. (2004). Nothing about us without us: the politics of the disability discours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5*(3), 249-263.
- [17] Kwang, B. (2011a). A study on policy making directions of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3*(4), 109-139.
- [18] Kwon, J. (2011).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education policy: Focusing on the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The Educational Research for Tomorrow, 24*(2), 97-123.
- [19] Noh, K. (2008). The boundary and limit of the educational authority of government to protect the right to learn of student. *Wonkwang law studies, 24*(4), 9-36.
- [20] Park, S., Choi, H., Park, Y., & Kim, Y. (2018). *How to teach students who need special education service: Applying evidence based teaching strategy*. Seoul: Education Science.
- [21] Park, Y. (2009). Institutionalization's plan of legislative Evaluation in Korea. *Public Law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38*(1), 215-236.
- [22] Ryu, J. (2012). The meaning of the disabled's participation on establishing or reforming special education law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3*(4), 207-231.
- [23] Seo, J., Song Y. (2004) *A Study on Multi Dimensional Teacher Evaluation*.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1*(1), 29-51.
- [24] Tharinger, D. J., Lambert, N. M., Bricklin, P. M., Feshbach, N., Johnson, N. F., Oakland, T. D., ... & Sanchez, W. (1996). Education reform: Challenges for psychology and psychologis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7*(1), 24.
- [25] Yoo, K., Jung, J., Kim, Y., & Kim, H. (2018). *Understan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Park Young Story.
- [26] Yoon, K. (2011a). *A study on policy making directions of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3*(4), 109-139.
- [27] Yoon, K. (2011b). *A study on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students with disability*.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3*(2), 55-77.
- [28] Lee, S., Baek, B., Oh, J., Lee, S., Lee, K., Lim, S., Lee, B., Kang, I., You, S. (2015). *Vision and strategy research of 4.16 education system*. Gyeonggi Education Research Institute.